

## 로스트 파인즈에서의 코튼 서미트 국제회의 리포트 <3/3>

### ◎ 세계의 경제 불황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는 2년 걸려

이틀째의 코튼 서미트는 국제 물류(國際 物流)나 세계 경제(世界 經濟)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될 것인가와, 미면 수급 동향 보고(美綿 需給 動向 報告) 및 이들에 관한 토의가 큰 주목을 받았다.

국제 문제에 관하여 보고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의 시니어 파트너(senior partner)인 매니징 디렉터(managing director)는 “세계적으로 생산 코스트를 낮추려는 움직임 속에서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물류는 늘어날 것이다.”고 예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컨테이너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어 있으며, 연료비를 낮추면서 컨테이너 요금도 낮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선박이 대형화하고 있어 이들 대형 컨테이너를 사용할 만한 항만 등의 인프라(infrastructure)를 계속 정비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물류 코스트를 삭감하는데 중요한 관점으로서 수송하는 물품의 부가 가치와 물류비의 상대적인 관계를 모델링하여, 물류 코스트를 가장 적합하게 만들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 예로서 스페인(spain)의 세계적인 중저가 제품 유명 브랜드인 자라(ZARA)의 사업 방식을 살펴보면 ‘자라 상품의 50%가 이베리아 반도(Iberia 반도 : 西歐의 西南端의 半島)나 모로코(Morocco)에서 생산되고, 약 15%는 터키(Turkey)에서, 약 30%는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물류비가 싼 지역에서는 값싼 상품을, 물류비가 비싼 지역에서는 가격이 비싼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물류 코스트를 가장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환경 풋 프린트(環境 foot-print)’ 등 환경 문제도 물류의 큰 테마가 되고 있다.

세계 경제 동향에 관하여 예일(Yale) 대학 경영 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 시스템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2008년 제 3사분기는 모

든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런 사례는 과거 40년간 없었던 일이라며, 사태가 심각하다고 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정부들은 재정 출동(財政 出動), 금리 인하(金利 引下), 감세(減稅) 등 “필요한 수단을 모두 실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도 한 나라 단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정책을 국제적으로 협조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런 다음에 이번의 경제 위기에서 빠져 나가려면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9년 1년 동안에 계획적인 대책을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어중간한 대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회복해도 그 후에 다시 위기가 되풀이 되어, 그때마다 기업에 공적 자금이 거듭 투입됨으로서 “기업 활동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버리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scenario)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포럼의 마지막 의제로, 전미 면화 평의회(全美 棉花 評議會)의 경제 정책 분석 담당(經濟 政策 分析 擔當) 부이사장은 세계 섬유 시장의 동향을 보고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2008/09 면화 년도의 세계 면화 생산량은 경작 면적(耕作 面積) 감소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중에서도 미면(美綿)은 1,350만 표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재고가 약 100만 표 있어, 이를 합치면 2,200만~2,300만 표가 되어 ‘미면은 세계의 섬유 수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원유 가격이 떨어지자, 폴리에스터 방적사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 소재끼리의 경쟁이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농작물과의 경쟁에서 1 에이커(acre : 야드·파운드법의 면적 단위 : 1acre는 약 1,224평) 당의 생산 코스트를 낮추는 것도 미면을 진흥하는 중요 초점이 된다. 다시 말해서 미면 경작에서 옥수수 가격 상승과 폴리에스터 가격 하락에 가장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 면화·방적·면직물 등의 ‘면업종’은 세계에 통한다.

‘더 소싱(The Soucring) USA 서미트(Summit : Cotton Summit)’는 5개의 ‘비즈니스 포럼’을 끝내고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하였다. 최후로 CCI 국제 면화 평의회 전무이사가 전체를 하나로 묶어 평하고 무사히 폐막하였다. 이 서미트는 전체를 통하여 면화·방적·데님 등 면직물의 면업종(綿業種)이 틀림없이 세계 경제의 중요한 섹터(sector : 분야)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새롭게 인상을 준 격조 높은 회의였다.

총괄에서 CCI의 전무이사는 ‘포럼에서 주목 받은 7개의 혁명’이나 테크놀로지 문제, 세계 경제 동향 등을 크게 살펴보면서 “어려운 경제 정세(情勢) 속에서 많은 사람이 서미트에 참가해 주었다. 현재는 생존(survival)을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인데, 동시에 장기적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서미트는, 이를 위한 학습의 장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총괄하였다. 확실히 어려운 경제 정세를 반영하여, 이번 서미트 참가수는 지난 서미트를 밀돌았다. 그래도 참가자들은 이번 내용에 만족하는 소리가 많았다.

실제로 서미트를 통하여 참가자는 넓은 시야로 면업종 또는 섬유 산업 전체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 서미트에 참가한 대표는 “일본 국내에서 자기 사업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지므로 이와 같은 국제적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면업종 관계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서미트는 세계의 톱 리더(top leader)가 참가하므로 그들과 서로 얼굴을 보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이번 서미트에서 인상에 남는 것은, 역시 면업종은 한 나라 안에서 산업 섹터(産業 sector)를 구성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것이다. 면화는 미국의 국제 전략 상품이다. 그리고 방직, 데님 등 면직물도 글로벌 경쟁을 넓혀나가는 국제 상품이다. 그만큼 끊임없이 해외를 의식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에서 코튼 서미트를 통한 정보 수집과 교류의 뜻이 그만큼 중요해지게 된다. 이런 점이 일본 국내에서만 의류 제품 시장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어패럴 유통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떤 참가자는 “이만한 세계적인 이벤트가 있는 것은 면화·방직·면직물 등 면업종뿐이다.”고 말하였는데, 바로 면업종은 ‘세계’로 통한다. 그것이 전통과 격식이라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전통과 격식을 다시 인식하는 서미트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